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백서

자유와공유의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백서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백서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10년을 돌아보며,
10년을 시작하며...



이제 인터넷은 우리들이 숨 쉬고 소통하고 행동하는 삶과 투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힐 때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며, 더 나아가 조직하고 행동하는 공간입니다. 촛불투쟁은 이러한 삶과 투쟁의 한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80년대 말부터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조직, 선전활동이 시작되었고, 96~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저지 노동자대투쟁에서 통신지원단의 이름으로 함께하던 정보통신운동 역시 같은 궤도에 있습니다.

96~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저지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PC통신과 인터넷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회운동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사회운동의 정보화'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의 기치아래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흘러온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정보통신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학교를 갓 나온 초창기 활동가들이 이제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견활동가 대열에 들어섰으며, 반면 새로운 젊은 활동가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인터넷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김진균 선생님께서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모뎀으로 통신에 접속하던 시절은 이미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제는 인터넷과 언론이 결합하더니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인터넷과 손전화(모바일)가 한 몸이 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편리해졌다고 하나 그만큼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아고라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그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그간 좌표를 잘못 잡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래저래 아쉬움이 남는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자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98년 민중대회, 부족한 서버 탓에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웠던 99년 지하철노동자 파업,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폭력을 전 세계에 폭로했던 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경찰의 서버 침탈을 막아내며 지켰던 02년 발전노동자의 민영화 저지투쟁 등 그동안 함께 투쟁해온 세월에 대한 뿌듯함은 남아있습니다. 정보인권의 기치아래 네이스 반대투쟁에 함께하였고,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정보공유의 기치아래 한미FTA 체결 저지투쟁도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작지만 뉴스, 블로그, 웹메일, 메일링리스트, 웹호스팅으로 형성된 진보적인 공동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10주년 백서는 지난 정보통신운동의 성과와 반성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최근 인터넷 검열, 감시, 통제를 위한 법안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자유와 대안의 공간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투쟁은 정보통신운동의 새로운 10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생활의 공간이든 주거의 공간이든 다양한 공동체들이 숨 쉬고 소통하고 행동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네트워크로서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보넷 10주년 백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간 진보넷 10년은, 한결 같이 후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회원과 자원활동가, 그리고 힘이 부칠 때면 어깨를 걸고 함께 해왔던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있어 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그랬듯 소통하고, 토론하고, 부대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중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문을 연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돌아가신 김진균 선생의 후임으로 잠깐 대표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

1990년대 후반에 정보운동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결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는 이런 운동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보운동의 이 산실을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운동은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정보운동이 등장한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 한국 사회에는 인터넷기술 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동이 생겨났고, 이때 등장한 온라인 소통체계에 대한 진보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는 또한 IMF 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강화되던 시점이다. 국내외 자본의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했고, 지적재산권을 내세운 자본의 공격에 맞서 정보공유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도 이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실천해온 정보운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인권의 의미와 양상이 역사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정보운동의 등장은 온라인 소통이라는 기술적 환경이 새롭게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소유와 이용 방식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이 발생한 결과이다.

정보운동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정보의 생산과 소통, 온라인 활동 등을 둘러싸고 긴박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사이버 활동에 대한 통제 기도가 노골화되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 정권은 지금도 '사이버모욕죄'를 제정하려고 나서고 있다.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자본과 국가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보운동은 멈출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앞으로도 한국 정보운동의 선두에 서줄 것을 기대한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대표

진보진영의 구심점을 기대한다

진보넷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이 나라의 진보지형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진보란 단어를 일반인이 입에 담기조차 꺼릴 만큼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권력이 진보를 이념적으로 빨갇게 착색해 일반인의 눈에는 굴절되어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는 기피의 대상을 넘어 타기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용기있는 이들이 있어 진보네트워크란 기치를 든 지도 어언 10년을 맞았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갖은 풍상에 시달리면서도 10년을 지켰으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보기에 따라서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진 세파를 견뎌내야 하는 진보네트워크에게 10년이란 장구한 세월이었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10년을 지켰다면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을 참고 나가면 진보진영의 거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모양입니다. 집권세력이 잃어버린 세월을 찾는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뒤로 돌리더니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느낌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검열을 통해 표현,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온갖 작태를 다 벌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이 그것입니다. 진보적인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소리입니다.

10년을 축하해야 하는데 현실은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을 닮아갑니다. 인터넷을 타고 세계가 공개, 소통, 참여, 공유로 가는데 이 나라에는 공포정치가 내습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 어떤 조직도 10년이란 세월은 착근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앞길은 험난하지만 이제까지처럼 탄압에 맞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진보의 가치를 더욱 널리 전파하는 선봉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진보진영의 구심점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10년 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세계에서 진보적 생각을 피력하고 함께 나누는 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자금을 모으고 고군분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노력으로 탄생한 진보넷은 지난 시간 넷세상에서 진보적 생각들을 아우르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등지가 되어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진보넷이 활동해온 지난 10년간 우리 세상은 넷세상과 현실 세계, 두 가지가 맞물려 함께 돌아가는 세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인격모독이나 유언비어 등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우리는 넷세상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하였으며, 특히 지난 봄 국민의 건강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몇 달 간이나 이어진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넷세상과 현실세계를 생각해 봅니다. 현실세계는 진보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인권단체나 활동가들에게 더욱 가혹한 인내와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진보적 사상과 실천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한 방식도 새롭게 풀어야 할 는 지에 대한 회의도 깊습니다. 경제 위기를 포함한 국제적 국내적 상황이 진보적 활동가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풀어내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넷세상과 현실 세계,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천력을 가진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세계와 온라인 양쪽에서 그 진열을 가다듬고 더욱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풀어주고, 그 문제의식을 풀어주기 위하여 더욱 따뜻하고 알찬 등지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생각과 활동이 현실에서 왜곡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 실천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실천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보넷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놓여진 과제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지만, 오늘 하루만은 서로 기뻐하고 격려해주면서, 앞으로 더욱 어깨걸고 든든히 나가는 넷세상의 큰 터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백승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10살. 나 열 살 때는 초딩 3년차. 아직 '국당'이던 시절, 어리버리 1년차를 넘기고, 2년차를 넘기고, 3년차에 접어들어서는 학교생활이 지겹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10년을 넘기고 있었다. 살아'가다'와 살아'내다'의 차이는 뭘까. 살아'가다'의 중심은 시간이고, 살아'내다'의 중심은 "사람" 아닐까. 적어도 내가 태어나서 10년을 살은 건, 살아'갔던' 시간이었지, 살아'냈던'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10년을 살아내고 있는 진보넷. 좀 더 친근하게 진보네~~ 진보네, 지난 10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고생길이 더 열린 것 같지만, 함께하면 더 든든하잖아요? ^^ 일명 운동권의 "싸이월X"인 진보 블로그도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진보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술 한잔 생각날 때 "진보네~"하고 옆집 찾아가듯 편한 진보동네가 되어주세요. 아자아자!!!!!!



배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10년간 싸워온 정보인권계의 거성에게

벌써 열 살이구나.

너를 알게 된 건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하던 대우 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의 군함발과 방패에 피 흘릴 때였지. 그때 막 인터넷이라는 것에 익숙해져갈 무렵이었는데 진보넷의 서버에서 흘러나온 그 동영상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지. 그때 네가 있어서 그 노동자들의 피 값은 그렇게 역사에 알려졌지.



요즘 MB씨께서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을 율아매려고 하는데

이미 너는 수년 전,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인터넷을 율아매려는 권력자들에 맞서 싸워왔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너와 네 친구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의 크기만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지.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네트워크에 억압의 포자가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권력에 맞선 자들과 싸워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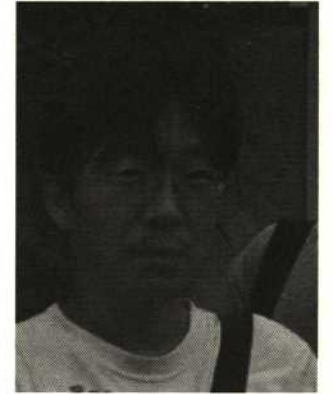
너는 한 때 내용등급제라는 인터넷 통제시도와 맞섰고
교사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탐하는 나이스하지 않은 네이스를 막아섰고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자본의 통제, 감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했지.

그리고 수많은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인터넷 실명제와 아주 오래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 그 실명제의 큰형은 이제 커질 대로 커져서 사이버모욕죄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민중의 온갖 생활사를 통제하려는 구나.

그러니 너는 지나온 10년만큼 다가올 10년도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옆에 내가 함께 할게. 아직도 빅브라더 같은 녀석들은 끈질기게 살아있어! 너도 지지 말고 끈질기게 녀석들과 싸워주길 바래. 돌아올 10년 후에는 너의 네트워크가 민중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를 바라며...

김용욱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장

진보넷 10년! 자랑스럽습니다.



군대에서 재대했던 94년, 전자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공간에 처음 접속 했었습니다. 그날의 생경한 느낌은 '쓸데없어 보이는 이상한 곳'이었었죠. 그런데, 네트워크 공간은 생각과 정보가 오고가는 특별한 곳이라 바로 유용한 이용처가 되었어요. 느린 전화 모뎀으로 문서를 읽었었고, 채팅이라는 낯선 공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웃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곳들을 만났죠.

그 중에 PC통신 참세상 BBS가 있었습니다. 몇 번 이용료를 냈었기도 했는데...아주 재미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운동권들의 텍스트라는 것은 종종 끔찍하게 지루하죠. 그러나 그곳의 회선과 장비는 진보네트워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초기 정보운동 그룹의 논의 속에서 1998년 진보네트워크가 출발했고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의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사회에 비어있는 정보인권이라는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본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네트워크의 길이었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진보네트워크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상 옆 동네 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유관한 일을 하고 있는 이의 축하 말을 마칩니다. 아...하나 더 진보넷 홈페이지에 있는 "네트는 짱돌이 되어" 라는 그림 멋집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인터넷과 정보통신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운동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일 현재 상황에서 정보통신이 지배자들과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라면 사회운동은 외딴 섬에 고립된 로빈슨 크로스로 전락 했을지 모릅니다.



진보네트워크의 10주년을 축하하려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운동이 정보통신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전념을 다한 지 10년 그동안 우리는 진보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한 소통과, 민주적 소통, 지식의 공유를 이루어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운동의 인터넷의 활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중과 사회운동을 매개하는 진보네트워크는 정권·자본과 맞서는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보공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지식의 공유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쟁점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보입니다.

10년을 이어온 운동이 풍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진보네트워크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며 보입니다. 10주년의 행사를 통해 10년 이상을 더 이어가는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중과 사회운동을 이어주는 '광케이블'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진보네트워크를 이끌어 가는 모든 활동가들의 더 나은 10년을 바라며.....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활동가

어느새 10주년, 아니면 이제 10주년?



나에게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넷 이전에 있었던 참세상BBS는 당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던 나에게 세상과 연결이 되는 통로였고, 참세상을 이어받아서 진보네트워크가 생겨났을 때에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지금 내가 쓰는 블로그 이름 또한 지금은 '진보공동체' 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민중가요모임에서 따온 것이기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출범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대안사회, 대안권력을 이야기하면서도 효율성 또는 대중과의 소통의 편이, 즉각적인 필요 등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의 대안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려하기 보다는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놓은 틀에 안주하려 했다. 과거 인터넷 이전시기에는 하이텔과 나우누리, 천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 갇혀 있다. 그래서 탄압과 통제가 가해지면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만다. 우리 운동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도 따져보면 그러한 근시안적인 접근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하기에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해왔던 것과, 하고 있는 것, 하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존재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감당해왔던 여러 가지 압력과 부담들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인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10주년을 맞이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도 작용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의 몰락 또는 자본주의의 종말 등을 얘기하는 논의들이 있다. 현대, 신자유주의가 망했다고, 자본주의가 종식되었다고 그 대안사회가 바로 올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착취와 야만의 시대는 다른 이름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가 꿈꾸는 대안사회의 맹아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야 한다. 10년을 맞이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보운동의 각 부문들 간의, 그리고 대중과의 접점과 소통의 간극을 좁히고, 정보화에 있어서 대안의 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새벽길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진보블로거

블로그를 하기 전에는 진보넷이 거대하고 위대한 단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만 10주년 축하 쓰려고 조직구성 봤더니, 역시 거대한 조직이잖아?! 일개 블로그로써 블로그 행사는 몰라도 진보넷 차원의 행사는 항시 부담스레 맘뻘했는데 역시 상하 명료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거대 조직이었어.



뻥이고 나로서는 너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진보넷에 애정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진보넷은 정보통신관련 정말 많은 일을 하던데, 여러 단체들과 같이 일하고, 갠춘한 스펙을 쌓고, 뉴스에도 많이 나고<ㅋㅋ, 진보넷의 발간 자료들이 객관성을 담보한 1차 출처로 인용되고. 이러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돈 되는 일도 좀 하고 그러지 않나?? 근데 안 그러더라. 참 신기해 일인 일인 참 훌륭하고 참 가난하고< 진보넷을 생각하면 진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식탁의 느낌. 아 추상

내가 싫은 일을 더럽다고 외면할 때, 내가 귀찮다고 연대를 게을리 할 때, 내가 없는 곳에 항상 있는 마이 프레샤쓰 아모레 몽세리 네이버 자동검색어도 뜨는 진보넷의 열 살 생일을 축하해요~ 잉? 느므 어린 거 ㅇ<-< ㅋㅋ 백살까지 같이 놀자 그때 난 백 이십하고도.. ㅇ<-< 그 때 난 꼭 살아있어야지~ -3-

세계시민블로거 양젤부처(구 명야평)

진보넷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알게 된 진보넷은 이제 제 일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음주흡연'과도 같은 곳입니다.. 음주흡연이 몸에는 해롭다지만, 시궁창에 빠진 영혼을 구할 때는 아주 적합한 환각이기도 합죠.. 시궁창에 빠진 저의 영혼을 구해주고 좋은 정보와 쓴소리 단소리 마다하지 않는 진보넷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더 많은 날들을 위해 오늘은 마음껏 음주흡연을 하고 오늘의 진보넷을 있게 한 많은 스텝, 후원자 여러분께 새삼스러운 고마움도 함께 전합니다. 진보넷, 핫팅!! ^^



스머프 진보블로거

10주년을 맞아 모든 진보넷 회원과 상근자들에게

APC 공동체는 10주년을 맞아 진보네트워크센터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10주년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들이 APC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진보넷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 정의를 위한 정보통신 영역에서 한결같은 혁신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공개 콘텐츠 라이선스의 초기 이용자였고 촉진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고, 당신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면서 항상 참여적 과정에 충실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사회 정의와 인권에의 확고한 헌신
- 사회정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대한 총체적 접근, 즉 저널리즘에서 기술적 혁신,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다양성과 창조성을 끌어안는 접근
- 성평등을 위한 헌신
-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필터링, 인터넷등급시스템, 정부나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패러디'/명예훼손/모욕을 활용하는 것 등 중요한 인터넷 권리 이슈들에 대한, 그리고 일국적 캠페인을 국제적 캠페인으로 연결시키는 리더십과 통찰력
- (법적 위협으로) 진보넷 개인 활동가의 위협을 수반하고 진보넷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정부 및 제3자와 맞서 대응했던 용기

또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들이 APC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APC의 회원단체와 연대단체가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아시아링크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리더십
- 당신들의 활동에 대해 APC 공동체와 세계 전체에 영어로 소통하고자 헌신한 것
- 2001년 APC 아시아 인터넷 권리 워크숍의 주최
- 위협받는 온라인 콘텐츠를 안전하게 돕기 위해 APC의 '긴급 대응 네트워크(Rapid Response Network)'에의 긴밀한 참여
- 노동자의 권리와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에 APC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것
- 국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당시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에의 APC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것
- 아시아 지역에서 APC 여성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Women's Networking Support Programme)에의 지원
-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APC 집행위원회 활동
-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 동안 APC와 국제 시민사회 참여자에게 제공된 당신들의 지원과 환대

단식투쟁에서 투옥에 이르는, 당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확고부동함, 힘, 그리고 담대함에 대해 APC는 진보넷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당신들이 잘 해낼 것을 바라며, 당신들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nriette Esterhuysen APC 사무총장

목 차

- 발간사 _ 4
- 축사 _ 6
- 화보 : 사진으로 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_ 21
-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_ 49
- 운영위원과 활동가 _ 198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관 _ 199
- 지나온 길 _ 204

진보네트워킹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진보네트워킹은...

화보

사진으로 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1998년 7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식 (1998년 7월 1일)



사무실 개소식 및 시범서비스 개통식 (1998년 8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창립총회 (1998년 11월 14일)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식 (1998년 7월 10일)



노동네트워크 출범식 (1998년 11월 14일)



창립 2주년 기념 회원행사



교육장 개관 고사 (1999년 10월 29일)



사법경찰권법 반대 거리 선전전 (2003년 8월 2일)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3년 7월 31일)



통신질서화법 반대 퍼포먼스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기자회견 (2001년 4월 2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테마집회 (2001년 8월 17일)



등급거부 선언 기자회견 (2002년 4월 22일)



지문날인 반대 걷기대회 (2004년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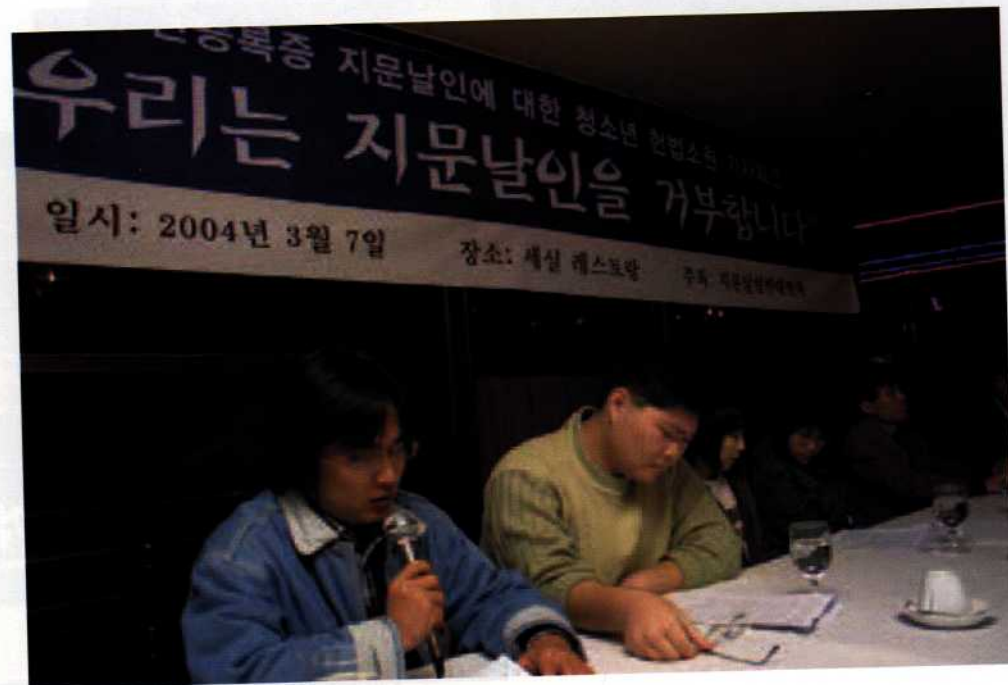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03년 6월)



스위스 노바티스 앞 1인 시위



한국 노바티스 항의방문 (2002년 6월 27일)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2004년 3월 7일)



글리벡 강제실시 기자회견 (2002년 1월 30일)



네이스 반대 퍼포먼스



네이스 반대 인권단체 단식농성 (2003년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워크숍



리처드스톨만 초청강연회 (2000년 6월 18일)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 국제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 (2003년 5월 10일)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0대 공약 기자회견 (2002년 11월 14일)



청정 김진균 교수님 정년퇴임 (2003년 1월 22일)



활동가 워크숍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2002년 11월 21일)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2003년 4월 15일)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토론회 (2003년 4월 22일)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토론회 (2003년 6월 24일)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 (2005년 5월 12일)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2005년 11월 22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한미FTA 반대운동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 (2007년 11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2007년 4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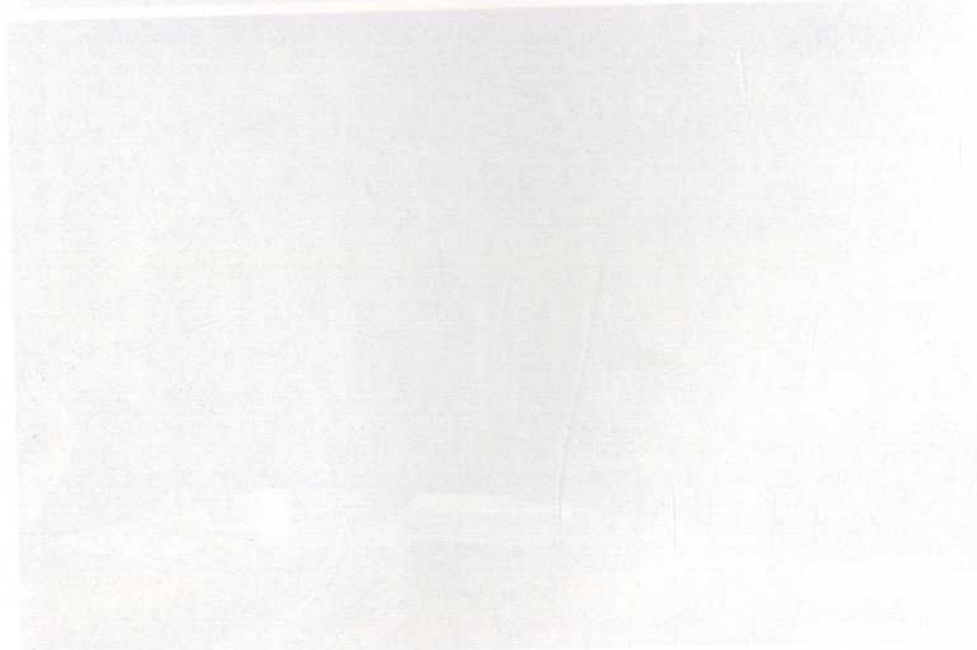
공공기관 CCTV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 (2008년 5월 19일)



RFID 리더기로 전자여권의 개인정보를 읽어내는 시연 (2008년 9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초창기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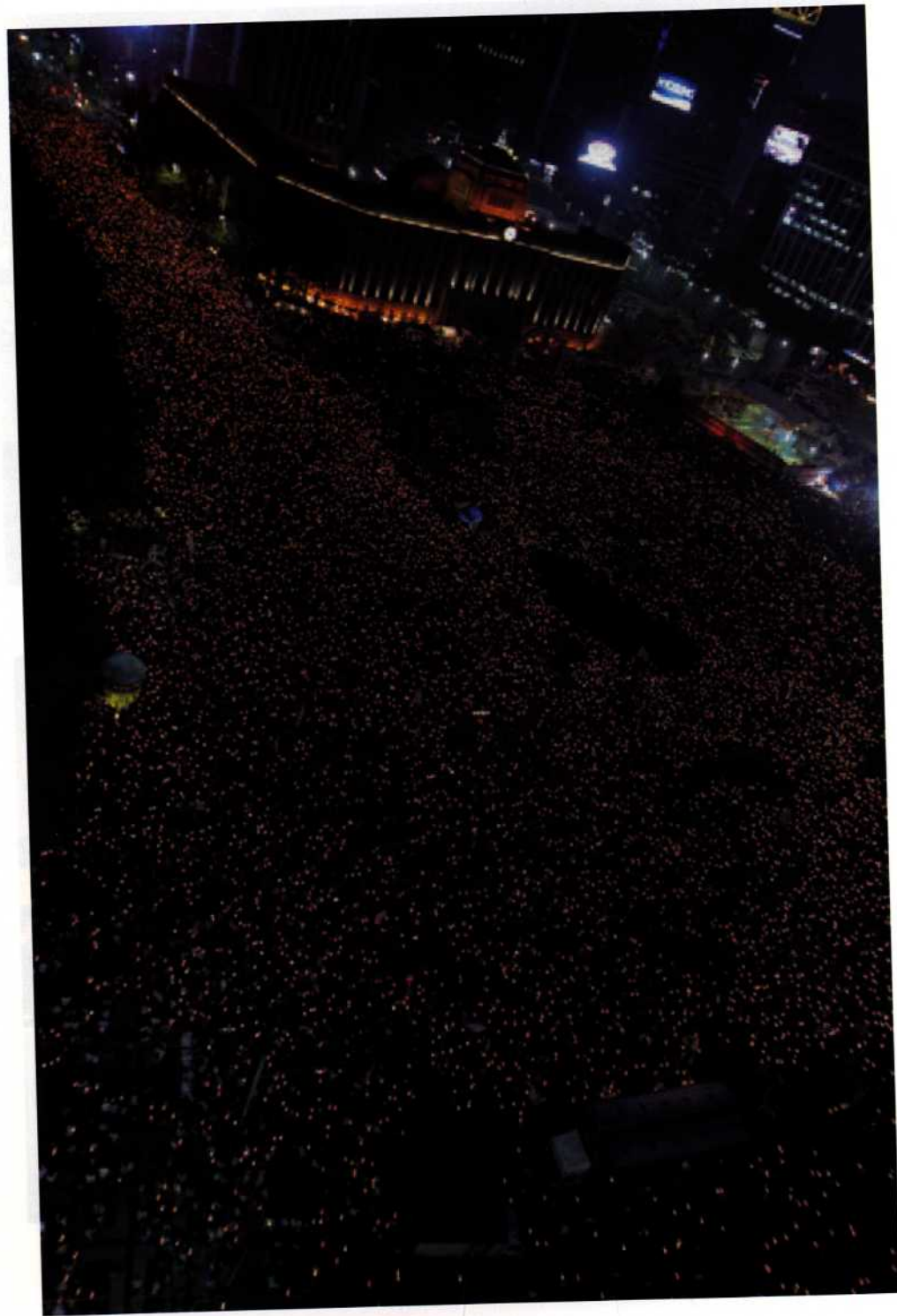
진보네트워크센터 창립식



로슈 규탄 기자회견 (2008년 9월 10일)



미디어행동 출범식 (2008년 1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진보넷 설립 이전

한국 사회에서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 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이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특히 국내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모색이 정보통신운동을 개척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은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성과였다.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화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자생적 소모임과 사설 BBS에 대한 진보적 실험들로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남한에서만만의 일은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했던 초기부터 세계 NGO들은 이 기술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로 인해 발생한 정보 독점과 정보 격차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인터넷이 '민주적이고' '지구적인' 시민사회를 출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그것이 유발하는 감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모색되면서 정보통신운동의 범주 또한 넓어졌다.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활용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 초기부터 국내외적인 사회운동 진영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었다. 특히, 신문·방송 등 기존의 대중 매체들이 일대다(一對多) 소통방식이었던 반면, 게시판 등 널리 쓰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대다(多對多) 소통방식으로서 기존의 어떠한 매체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남한의 사회운동 진영은 초창기부터 사설 BBS를 이용한 독립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해 왔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설 BBS 운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전신인 <참세상 BBS> 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과 같은 상업적 PC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사설 BBS의 흐름은 쇠퇴하게 된다. 이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PC 통신망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상업통신망의 '진보 동호회'가 사회운동의 주요

참세상BBS 이용자 한마당. 왼쪽이 운영자인 김형준 씨. 참세상 BBS는 항상 이용자들이 BBS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 소통공간으로 부상하였다.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은 진보 동호회는 '속보란'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사안별로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여론 개입이나 말머리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노동자대회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회 속보란을 중심으로 '현장중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6년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시위 도중 숨지자 PC통신 대학 동호회들이 일제히 동호회 로고 화면을 회색으로 바꾸어 조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동호회 운동과 더불어 사회단체가 내부적인 소통용으로 상업통신망에 '폐쇄이 사용자그룹(CUG, Closed User Group)'을 개설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들은 CUG를 내부 소통용이나, PC 통신 이용자들에게 각 단체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이용하였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인 경우에는 기존에 팩스로 소통하던 것에서 PC 통신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체계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운동 진영의 홈페이지 개설은 1990년대 중반 <정보연대 SING>에서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모처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기준없이 삭제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컴퓨터 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의 주요 매체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커뮤니티나 홈페이지가 특정한 이슈를 여론화시키는 독자적인 매체 구실을 하기 시작했고 자생적 이슈 그룹이 늘었으며 그에 따라 온라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시도되었다.



정보연대 SING과 통신연대

국내 정보통신 운동을 시작했던 주요 단체 중 하나는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다. 정보연대 SING은 1994년 서울대학교 내 동호회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SNU를 Social로 바꾸고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강령에서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보연대 SING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하나로 정보운동을 인식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보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으로 보았다. 정보연대 SING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국내 사회운동에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민주노총 등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국진보디렉토리(KPD) 구축을 통한 사회운동단체 디렉토리 서비스,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제공 등을 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 PC통신 참세상, 정보연대 SING, 상업통신망의 진보동호회 활동가들은 정보사회 이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정기적으로 '월레포럼'을 진행하였다. 처음에 학습 모임으로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통신검열 반대운동 등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통신연대)>라는 연대들을 형성하게 된다. 통신연대에는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바른통신을위한모임, 얼터너티브 인터넷서널, 정보연대 SING,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진보청년통신동우회,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소모임,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등이 참여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



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수십 년 간 계속된 군

사독재와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국가의 통제에 익숙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남한의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넘어야 할 벽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결국 1998년 초에 폐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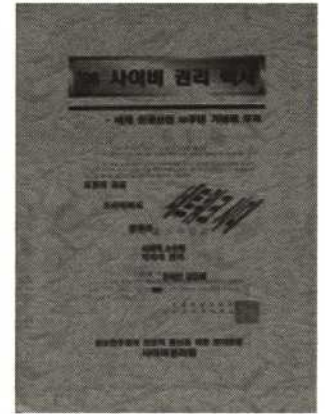
하지만 1999년에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체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일본에서조차 완전 폐지된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자 이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최초의 활동이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② 통신검열 반대운동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

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국내외 표현의 자유 운동을 연구·정리하는 한편, 1996, 19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 1998년 『사이버권리백서』를 발간하였다. (<http://freespeech.jinbo.net>) 이러한 통신검열은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의 강화로 변화·확장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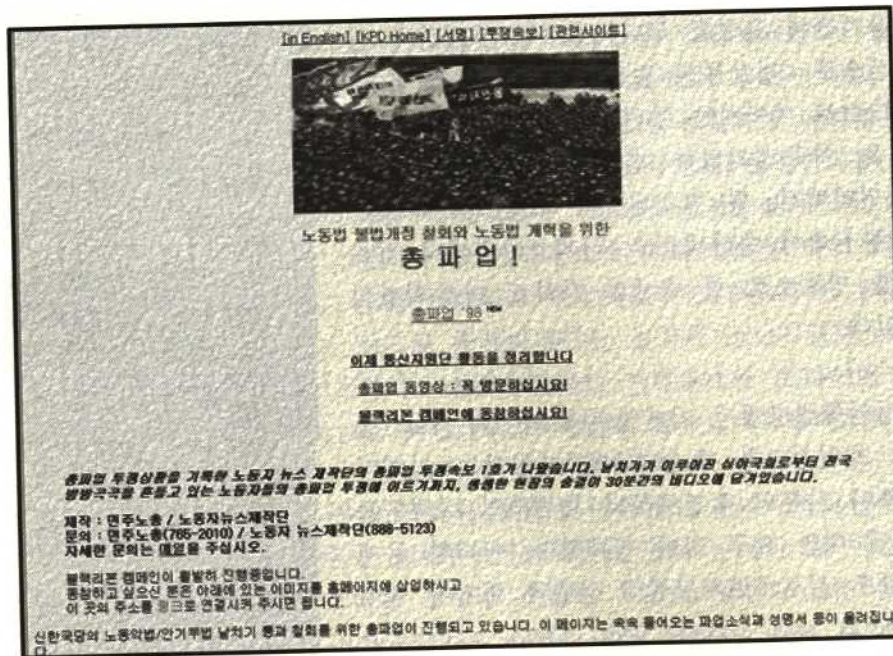
한편 상업통신망에서 이메일이나 아이피 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나 자본의 검열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또한 거세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의 한가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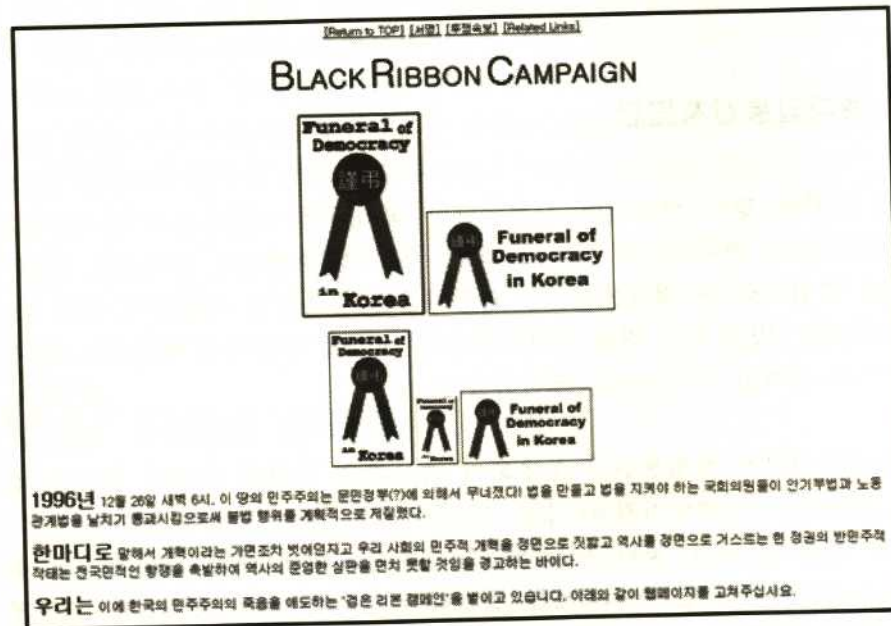
② 총파업통신지원단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폐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도언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숙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숙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연대로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총파업통신지원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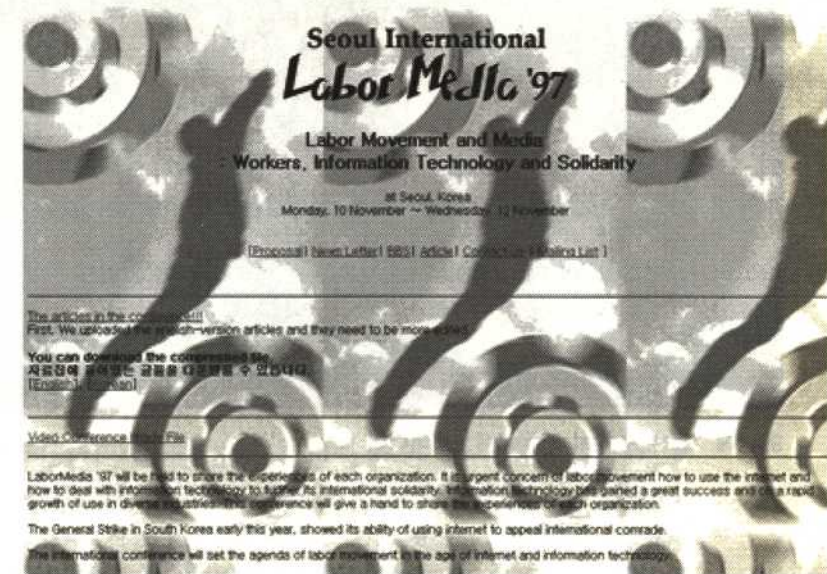


블랙리본 캠페인

총파업통신지원단은 민주노총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또한 이전까지 실험되었던 온라인 상의 이슈 파이팅 방법들이 총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남한 사회운동 진영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운동적 가능성을 인식시켜주었으며, 1997년 말 <제1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97년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

1997년 11월 10일~12일,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http://lmedia.nodong.net/1997/>) 1996년 11월 지식인연대, PC통신 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정보연대SING,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LaborTech와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9월에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진균 지식인연대 대표와 고영구 변호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 행사는 △ 국제 노동자 영상운동의 현상과 임무, △ 미디어와 노동운동, △ 노동운동과 정보화, △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등 4개의 워크숍과 △ 지구화, 정보화, 노동운동, △ 정보화와 노동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등



97년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홈페이지

2개의 주제토론, 그리고 국제노동영화제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노동운동과 인터넷 : 새로운 국제주의』의 저자인 에릭 리(Eric Lee),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인 피터 워터만(Peter Waterman), 영국 노동넷의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ey), 미국 노동넷의 스티브 젤저(Steve Zeltzer), 캐나다 워킹 TV 대표인 줄리어스 피셔(Julius Fisher) 등 10여명의 노동운동, 네트워크운동, 영상운동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미국 및 영국 노동네트워크 등 각국의 진보적 네트워크 운동과 미디어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 이후, 국내에서도 진보 네트워크 및 노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제안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99년에 개최된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97년 '총과업통신지원단' 활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전 사회적인 정보화 열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갔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좀더 새로우면서도 심화된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연대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었다.

한편, PC통신이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상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요구 등 정부의 통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사회운동이 이룬 정보화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국가 혹은 뉴미디어 자본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자본과 국가의 정보화는 언제든지 감시와 억압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고 사회운동 스스로의 계획과 힘,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원칙 위에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이루고자 진보네

트위크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 취지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구축한다. 둘째,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넷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목적과 취지

90년대의 정보화가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보급과 확산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영역에서 일어난 다종다기한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진보적 사회운동도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에 자유롭지 않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8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PC통신은 소수의 몇몇만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회단체들이 폐쇄이용자모임(CUG)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통신 아이디(ID)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진보운동에게도 대중적인 매체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1월 노동자 총파업과 함께 진행된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서는 조직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극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PC통신이나 인터넷이 보다 대중적인 매체가 되어가는 만큼 정치적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정보화가 진보적 사회운동에 의미를 갖는 것은 자본과 국가가 주장하는 정보화의 장미빛 미래 때문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민중들이 만들어 내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는 풀뿌리 연대이고 이것으로부터 싹틀 희망의 미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정보화 과정을 돌아보면 연대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 사회운동이 이룬 정보화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기보다 국가 혹은 뉴미디어자본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자본과 국가의 정보화는 언제든지 감시와 억압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고 사회운동 스스로의 계획과 힘,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원칙 위에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이루고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우리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건설을 통해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유롭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요원한 과제로 여겨졌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DJ의 집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IMF 신탁 통치 이후 진행된 자본의 공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리는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반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자본 위주로 재조정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87년 이후 지속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계급대중운동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운동의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존재하는 진보운동의 힘이 모여 상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전체 진보운동의 합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한 IMF 사태는 일국적인 시야와 대응으로 풀릴 수 없는 사회운동의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관점과 전망이 필요함을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진보운동의 준비와 대처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운동과 대중,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내운동과 타국의 운동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진과 연대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상업통신망에 CUG(폐쇄 이용자 그룹)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나우누리에서 CUG를 운영하고 있으며 1300여 회원이 CUG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전자적인 문서수발과 온라인 토론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조직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매월 1천만원에 달하는 운동자금이 미디어자본에게 넘겨지는 것에 비해 사회운동단체라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해 따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 등 제공받는 것에 부족함이 많다.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단체들에게 상업통신망의 CUG는 아직 문턱이 높은 서비스이며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인 것이 현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스스로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유지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회단체들이 PC통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정보화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상업통신망과 인터넷의 곳곳에 진보적 사회운동의 진지가 존재한다. 어떤 것은 CUG(폐쇄이용자그룹)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것은 IP(정보제공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또 인터넷 홈페이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들 모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 진보운동의 성과물들이나 CUG와 진보적인 IP들이 여러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으며, PC통신 서비스와 웹도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며 여러 정보들이 상호긴밀히 결합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얻기느커녕 유지 구축을 위해 들인 노력만큼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진보운동의 독립된 정보인프라 위에 수렴하여 보다 용이한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뉴미디어자본의 통신서비스를 정보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진보운동이 자신의 대의와 원칙에 걸맞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진보운동의 원칙 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만이 검열과 표현, 통신의 자유 제한과 같은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 통신망에서 이루어진 한총련 아이디 사용중지 및 게시물 삭제 사건, 안기부에 의한 개인메일 검열 의혹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상업통신망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진보운동의 독립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상업통신망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위해 구축된 서비스로서 진보운동이 원하는 그리고 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윤이 아닌 진보운동의 강화라는 목적 하에 운영되는 진보운동의 정보인프라 위에서는 진보운동의 요구와 조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구축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과정

1998년 2월, PC통신 참세상을 운영해오던 바른정보 김형준 씨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제안하며, '참세상'의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4월부터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위한 협의모임을 구성하였다. 98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식인연대, 통신연대, PC통신 참세상, 정보연대 SING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준비모임이 개최되었으며, 이때 명칭을 <(가칭)진보네트워크센터>로 하고 임시대표로 김진균 교수를 추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그 취지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방식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당시 네트워크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운동 진영을 '서비스 대상'으로 강하게 포섭해오는 상업통신망과 차별성을 가져야 했으며,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광범위한 사회운동 진영의 참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준비모임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대표자회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건치중앙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방송개혁국민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시민의신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센터, 새문명아카데미, 매비우스, 지역 정보통신단체(광주 BIT-SIG, 전주 INP, 부산정보연대 PIN) 등 여러 사회단체들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활동가들의



2008년 7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식

토론을 조직하였다.

그 결과 1998년 7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총 115명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준비모임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던 김진균 교수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강내희, 강동진, 구중서, 김도형, 김명준, 김제남, 김형준, 노진귀, 박석운, 백찬홍, 서준식, 유덕상, 이용근, 이종희, 이철순, 장도리, 정원오, 진관스님 등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앞서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과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으며,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 민교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강명구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근영(한겨레신문사 뉴미디어센터 부장), 최영목(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준) 사무국장), 김형준(참세상 BBS 설립자) 씨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 추진위원장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

■ 추진위원 (1998년 8월 17일 현재)

이갑용, 유덕상, 김영대, 단병호, 이규재, 이상춘, 허영구, 이동진, 이용길, 최동식, 고영주, 이성도, 정윤광, 이상학 (이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영민 (노동정보화사업단),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상담소), 김세균, 채만수 (이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강수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상술 (대구노동정보도서관), 박천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환재 (전국노동단체연합),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김진균, 이종희 (지식인연대), 강내희, 강치원, 박상환, 백도명, 유초하, 이해영, 윤덕홍, 권인호, 이성백, 박경태, 박거용 (이상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강정구, 정원오, 정건화, 박종진 (이상 학술단체협의회), 정근식, 조돈문, 강명구, 이건, 박형준, 신인령 (이상 교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김기중, 이원재, 김도형, 조광희 (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정훈 (새문명아카데미), 김미애 (매비우스), 오성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창수 (국제문제연구소), 김명준 (노동자뉴스제작단), 최종숙 (방송개혁국민회의), 구중서 (민족예술인총연합), 고옥희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임종석 (청년정보문화센터), 김종식 (Youthnet), 조희연, 박원순 (이상 참여연대), 김환석, 이종구 (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고광현 (빛고을정보공동체), 이상길 (사업가), 김형준 (참세상), 장여경 (통신연대), 오병일 (정보연대SING), 이창복, 이수금, 노수희, 천영세 (이상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권영길 (국민승리21), 오세철 (정치연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이필두, 양연수 (이상 전국노점상연합), 전동균 (보건의료대표자회의), 이상훈 (의사),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김용진, 한영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용익 (서울의대교수), 임종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박석준 (한의사), 정양수 (한의사), 김종구, 김창엽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복호 (서울의대교수),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오충일, 나효우, 장성룡, 이근복, 백찬홍 (이상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홍근수 (목사), 진방주 (목사), 윤인중 (목사), 김거성 (목사), 김나영 (정도회),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김제남, 차명제 (이상 녹색연합), 최경송 (청년생태주의자KEY), 최혁 (청년진보당주비위), 김봉태, 김경윤 (진보민중청년연합), 박재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박인식 (대구진보청년회), 김수자 (서울진보청년회), 채원희 (안양민주화청년협의회),

서영민 (인천새날청년회), 유영주 (서울노동청년포럼), 정종권 (사회인연합), 유기홍 (한국청년연맹), 이용훈 (서울사서클럽), 노희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김정기 (역사문제연구소), 김태수 (미래정보센터), 류승렬 (충북정보문화센터),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손준혁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병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형모 (시민의신문), 임상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상 무순, 총 130명)

■ 발기인 (1998년 11월 12일 현재)

강경수, 강경희, 강동일, 강문국, 강미경, 강민석, 강민형, 강성실, 강성중, 강영훈, 강원영, 강이경,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광완, 고미진, 고유기, 공명, 곽탁성, 구민희, 권기윤, 권순원, 권오성, 권태호, 권혜진, 권효신, 김경아, 김구, 김기문, 김기태, 김기호, 김기환, 김남균, 김남수, 김대준, 김덕련, 김동완, 김동원, 김령은, 김만수, 김명섭, 김명진,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혜, 김민환, 김백영, 김상섭, 김상현, 김상훈, 김석순, 김선기, 김선빈, 김선실, 김선중, 김성국, 김성균, 김성진, 김수지, 김승만, 김승택, 김승학, 김영석, 김영선, 김영식, 김용경, 김용직, 김용철, 김운의, 김원일, 김은미, 김은미, 김응도, 김익용, 김재광, 김재훈, 김정규, 김정미, 김정숙, 김정아, 김정연,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종철, 김준, 김지향, 김지현, 김지호, 김지희, 김찬, 김창현, 김필원, 김하림, 김현, 김현덕외, 김현배,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형남, 김형락, 김형렬, 김형욱, 김혜경, 김혜린, 김혜영, 김홍찬, 김효신, 김휘대, 남성기, 남시욱, 남은영, 남호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래선언(최도은), 대구노동교육협회, 대전늘푸른노동자학교, 대학신문사, 도서관운동연구회, 도안구, 도영경, 류동영, 류미경, 류수정, 류임진, 류지선, 마창민주노동자협의회, 문강, 문용포, 문준희, 문태준, 문형진, 미디어오늘, 민병철, 민혜경, 박건희, 박근영, 박근태, 박미효, 박병상, 박상린, 박상현, 박성일, 박성훈, 박소현, 박수형, 박순열, 박승렬, 박승열, 박시화, 박영자, 박용환, 박유미, 박은성, 박인성, 박장근, 박정진, 박종일, 박종진, 박준원, 박준형, 박준호, 박진홍, 박창일, 박철우, 박해용, 박현배, 박형근, 방성현, 배노준, 배병인, 배정란, 배한숙, 백근기, 백정희,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서관모, 서복경, 서판석, 서형석, 설호규, 소병학, 손미승, 손장훈, 손주연, 송병찬, 송운환, 수원노동자의집, 신배현경, 신병현, 신봉수, 신상도, 신성훈, 신재걸, 신정화, 신종민, 신현방, 심정숙, 안길수, 안산노동교육실, 안상정, 안상준, 안송산, 안양노동정책교육실,

안윤길, 야수다 유키히로, 양성지, 양술규, 양진욱, 엄귀영, 엄형식, 엄혜진, 오미경, 오인영, 오주환, 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유동민, 유우진, 유철하, 유행중, 윤강우, 윤경수, 윤귀월, 윤상원, 윤완수, 윤용석, 윤재연, 윤종욱, 이가은, 이강원, 이건홍, 이경진, 이근영, 이깨다 서지, 이달원, 이대경, 이동렬, 이동수, 이리에 태루유기, 이명은, 이미금, 이병희, 이봉용, 이상섭, 이상진, 이상진, 이상태, 이상훈, 이석구, 이성일, 이성재, 이성직, 이성진, 이수강, 이수정, 이수현, 이승아, 이승우, 이열구, 이영미, 이영주, 이영준, 이왕덕, 이요훈, 이용근, 이용욱, 이용훈, 이우열, 이은미, 이은숙, 이임용, 이재훈, 이정엽, 이종국, 이주열, 이주영, 이지훈, 이진, 이진석, 이진석, 이진영, 이창근, 이창섭, 이채관, 이태화, 이한용, 이해룡, 이혁, 이현숙, 이희성, 인천민중연합,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인하대학신문사, 임규근, 임명균, 임석빈, 임완철, 임홍길, 작은책, 장귀연, 장석준, 장재철, 장종훈, 장현성, 장형성, 전명훈, 전미선, 전재현, 전진곤, 전진호, 전희경(김계현), 정경락, 정경원, 정대화, 정수범, 정영숙, 정지범, 정지윤, 정창기, 정창원, 정현, 조서린, 조성은, 조운경, 조인혜, 조정상, 조진희, 조태환, 주자영, 주재권, 주철민, 주현숙, 중앙도서관, 채종철, 최강숙, 최경한, 최관동, 최나루, 최석진, 최성찬, 최성혁, 최세진, 최수영, 최순관, 최승국, 최윤희, 최재혁, 최정운, 최정학, 최종민, 최형익, 최희경, 탁상우, 평택노동교육실, 하정수, 하현아, 한수용, 한수진, 한영현, 한은정, 한주희, 한희정, 함정아, 허상수, 허영근, 허재영, 홍경두, 홍규희, 홍상국, 홍준희, 홍지연, 홍학기, 황경수, 황승식, 황정규, 황현용, KEVIN (이상 가나다순, 총 379명)

■ 회선 기증자 (1998년 11월 12일 현재)

김성원, 민변,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생회, 임원택, 최갑수,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통신연대), 한결법무법인 (이상 가나다순, 총 7명(단체))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같은 해 11월 14일 정식발족 당시까지 추진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및 홍보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참세상 BBS 서비스의 운영 및 개발을 바른정보로부터, 그리고 웹호스팅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정보연대 SING으로부터 이월받아 8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8월 9일에는 PC통신 참세상의 사무실이었던 양재동에서, 갈월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취지에 걸맞는 일련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8년 7월 15일에는 한겨레신문사, 서울기독교청년회와 공동으로 <아래아 한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 22일에는 <지역네트워크 운동의 과제와 현황> 토론회를, 10월 31일에는 <학생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디어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식 발족이 있었던 주인 11월 9일~15일에는 제2회 노동미디어 행사인 <대안미디어와 현장네트워크의 길찾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래아 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사회운동에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험도 계속되었다. 1998년 9월 12일,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총결산과 실업자 대행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8일에는 <98 민중대회> 인터넷 방송을 실험하였다. 당시만해도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고정된 수입이 참세상 BBS 이용료 약 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상업통신망에 대항하는 독립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1구좌 3만원을 약정하는 '1만 발기인' 모집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재정적인 측면과 함께, 진보네트워크의 의의를 알리고 진보네트워크의 이용자로서 개개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장비 및 회선 기증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총 130명이 추진위원으로, 37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7명의 개인과 단체가 회선거증을 해주었다. 비록 애초 목표했던 바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추진위원, 발기인, 회선거증자의 지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초창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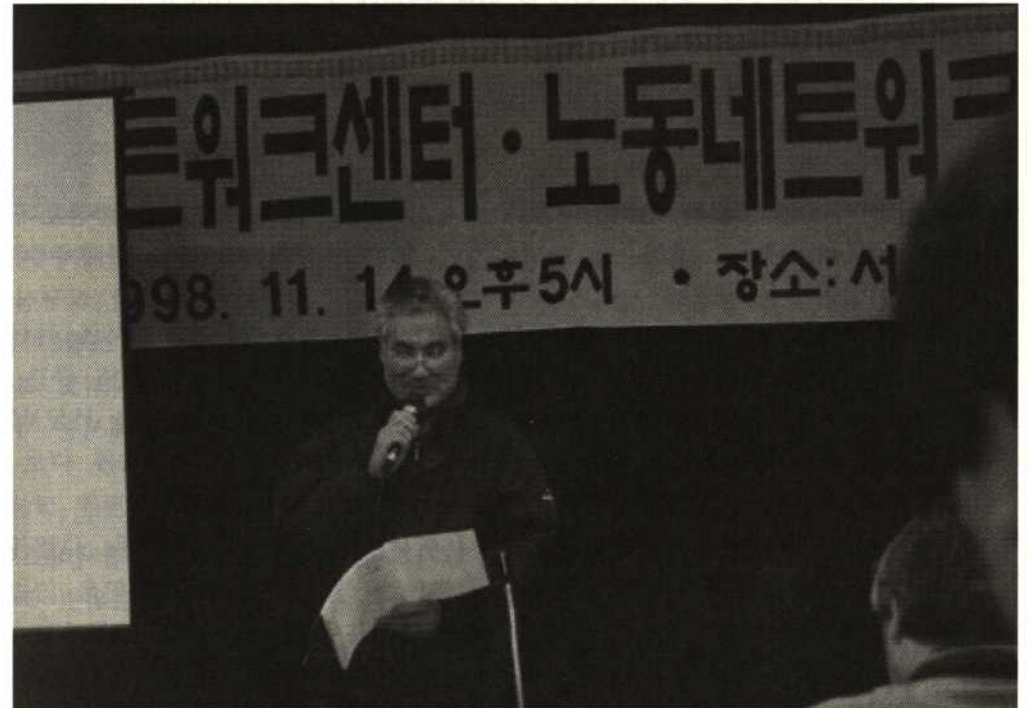
추진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진보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명칭'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SK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명칭이 '싸이월드(Cyworld)'인 것처럼, 단체로서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명칭을 공모한 것이다. 1998년 9월 15일~10월 29일까지 공모를 하였고, 그 결과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진보넷, 진보네트워크 '광장' 등 3개의 후보작이 선정되었다. 이후 11월 4일까지 참세상 BBS 내 게시판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세상이 21명, 진보넷이 4명, 광장이 1명으로 '참세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는 11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

2008년 11월 14일 오후 5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노동네트워크의 발족식 역시 진행되었다.

32명의 추진위원, 37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족식 및 총회에서, 단체의 정식 명칭을 <진보네트워크센터(영문명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로, 서비스 명칭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inbo.net>)>으로 승인하였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왔던 김진균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고, 강정구, 김형준, 서준식, 오세철, 유초하, 윤종현, 이갑용, 장창원, 홍근수 등이 이사로,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로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로 선출되었다.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창립총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초기 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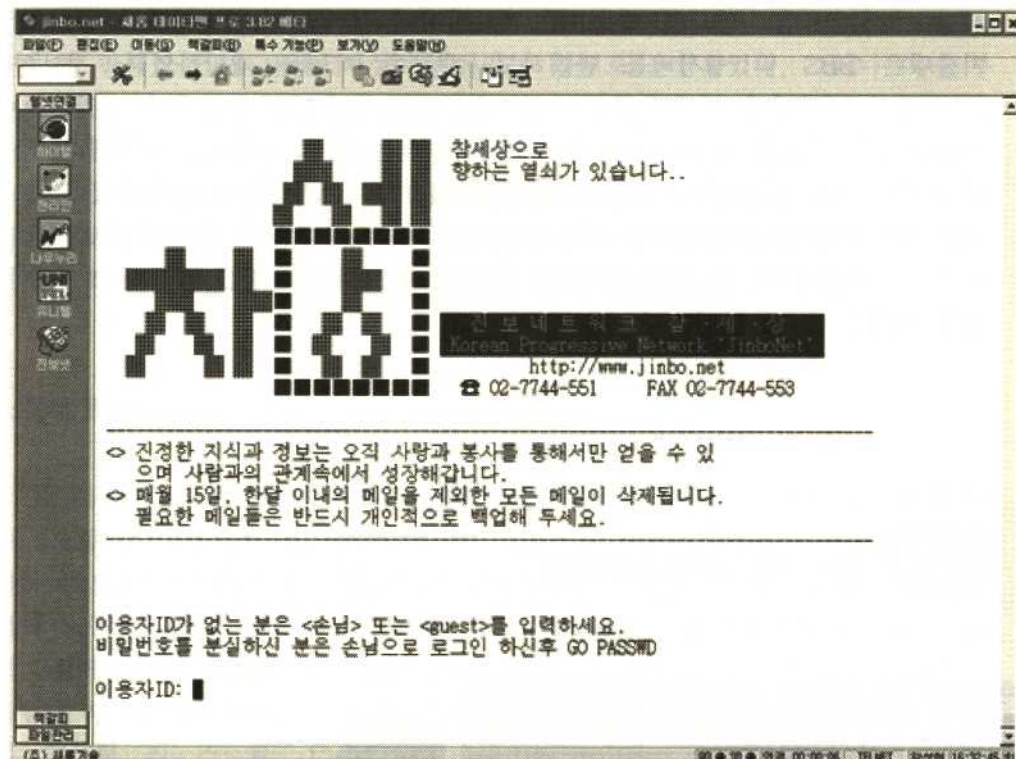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발족 직후 1998년 11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참세상 BBS 커뮤니티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연대 SING에서 제공하던 사회운동 디렉토리 및 웹호스팅,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전받아 시작하였다.

1998년~99년의 최대 과제는 '이용자 확대 및 재정/서비스 안정화'였다. 진보네트워크가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보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져야 한다. 또한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고정적 수입기반은 '이용료'였기 때문에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네트워크는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며, 거꾸로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가 확보되면 자생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되었다. 1998년 말 당시 실제 유료 이용자는 약 800명 정도였는데, 99년까지는 2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안정화하는 것도 관건이었다. 설립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참세상 서비스를 이월받았기 때문에, 참세상 시스템('마음' 시스템이라고 불림)에 적응하는 과도기에는 간혹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진보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초창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업팀은 조직/기획팀, BBS 서비스팀, 웹서비스팀, 기술팀, 교육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직/기획팀은 부문 및 지역 네트워크 조직화에 주력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설립된 노동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위해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노동관련 단체의 CUG 이전 또는 신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인권DB를 통한 인권네트워크,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술네트워크, 여성관련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 구축 등 각 부문네트워크의 특성에

맞게 부문네트워크 추진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지문날인 거부운동, 통신검열 반대운동, 지적재산권 토론회 개최, 99년 노동미디어행사(LaborMedia '99) 개최 등 정보통신 이슈에 결합하기도 하였다.



에뮬레이터로 접속한 참세상 BBS 첫화면

당시 진보네트워크의 중심 서비스는 참세상 BBS였기에 BBS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량이 투입되었다. 재정을 고려하여 BBS 이용료를 4950원으로 인상(당시 대부분의 상업통신망의 이용료는 9900원이었다)하는 한편, 이용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노조 및 단체의 CUG 개설을 홍보하는 한편, 상업통신망에서 참세상으로 CUG를 이전할 경우 데이터 이전을 지원하였다. 동호회, 꼬마게시판(꼬마게시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블로그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이다) 등 이용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권하루소식, 작은책, 시민의신문, 노동조합정보 등 진보진영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2월 18일, 나우누리에 있던 민주노총 CUG가 참세상으로 이전해왔다. (나우누리 CUG는 5월 18일 폐쇄되었다.) 민주노총 CUG가 이전해오면서 참세상 이용자가 급증하여 1999년 하반기에는 2000

명에 이르게 되었다.

웹서비스팀은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진보디렉토리(KPD, 운동 영역별로 단체 및 노조 홈페이지 링크를 디렉토리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참세상 뉴스, 그리고 인터넷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였다. 기술팀은 BBS 및 웹서버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였다. 정보연대 SING에서 이전받아 메일링리스트 및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전화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PPP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서비스의 문제(버그)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 교육팀은 교육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교육장을 빌려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1999년 10월 29일 20석 규모의 교육장을 개관하고 정규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문 및 지역네트워크

부문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은 상업 PC통신망에 CUG를 개설하거나 정보제공(IP)을 하고 있었고, 일부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갖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성과물들이기도 불구하고, 여러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었고 PC통신 서비스와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기존의 사회운동의 정보화의 성과를 모아 노동(LaborNet), 환경(EcoNet), 여성(WomenNet), 학생>YouthNet), 인권(Human Rights), 보건의료(Health), 문화(CultureNet) 등 각 부문별 네트워크 연합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보통신연합(APC)의 미국 회원 네트워크인 IGC가 PeaceNet(평화), EcoNet(환경), ConflictNet(사회갈등), LaborNet(노동), WomensNet(여성) 등 5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각 부문네트워크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 재정, 운영측면에서 각 부문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상호

소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에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가 계기가 된 만큼, 노동네트워크의 설립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98년부터 학생네트워크도 준비되었다. 여성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조직이 꾸려지지 못하고, 참세상 BBS 내에 '여성마당'이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여타 부문네트워크는 만들어지지 못하였으며, 200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은 노동네트워크뿐이다. 애초 기획과 달리 부문네트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부문네트워크의 건설이 단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커뮤니티의 구축이 아니라, 각 운동영역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단체간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설득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동네트워크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직후, 1998년 2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는 <노동미디어협의회>로 전환하였으며, 3월에는 노동네트워크의 구상과 기획을 위하여 노동미디어협의회 산하에 <노동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 노동네트워크 건설 추진에 대한 초벌 기획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1998년 3월에는 노동계 총파업에 대비하여 labor 메일링리스트(labor@mail.sing-kr.org)가 개설되었다. 1998년 4월, 노동미디어협의회와 독립적인 <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양대 노총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1998년 7월 10일 양대 노총과 노동단체, 연구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설립 당시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

가 발족하였으며, 노동네트워크 설립 종합계획과 PC통신 사업계획, 인터넷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같은 해 8월 20일 노동네트워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PC통신 참세상에 <노동네트워크> BBS 서비스를 개설하고,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http://www.nodong.net>, <http://www.jinbo.net/labornet>)를 개통하였다.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는 '고용안정통신단' 활동을 통해 노동현장의 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설명회 조직화, 자원활동가 조직화 등을 통해 사업팀 구성을 마치고, '98 노동미디어주간인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출범하였다. 한국노동네트워크에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노동학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 대표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6개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가하였다.

노동네트워크의 사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온라인 노동네트워크의 운영. PC통신 참세상에 '노동네트워크' BBS를 두고, 각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의 CUG, 동호회 개설을 지원하였으며,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상담실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단체의 홈페이지나 이슈 페이지 개설을 지원하고,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대안 노동언론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둘째, 노동운동 지원·연대사업. '고용안정 통신단' 운영 등 노동운동의 주요 투쟁에 결합·연대하였고,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연대를 지원하였다. 셋째,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를 발행하고, 노동자 정보캠프를 개최하는 등 노동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2008년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는 1998년 7월 24일 1차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학생네트워크 건설의 의의에 대해 합의하고, 설명회 개최 등 학생네트워크 추진사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8월 20일, 학생네트워크 BBS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998년 9월 17일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당시 참가단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21세기학생연합, 전국대학영자기자연합, 전국학생연대, 서울대전기공학부통신단, 서울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숙명여대·강남대총학생회 등이었다. 학생네트워크 역시 PC통신 참세상에 학생네트워크 BBS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운영을 통해 학생운동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회 선거 등 학내 주요 사안을 이슈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학 내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학생기자연합통신사> 설립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한동안 개인 운영자가 학생네트워크를 관리하다가 현재는 이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학생네트워크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대학 학생회마저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역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을 전후하여, 각 지역에서도 전문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이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부터 <녹두 BBS>를 운영하며 지역 단체 정보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 전주의 <정보통신연대 INP>(<http://www.inp.or.kr/>)를 비롯하여, <부산정보연대 PIN>,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http://www.liso.net/>), 전주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광주 <참@네트워크>,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쉽게도 이들 중 일부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부분 각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역 언론'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1998년의 네트워크 환경은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 상용 PC통신 서비스가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PPP 서비스)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소수의 단체만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3년 만에 초고속통신망이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다음(Daum), 프리챌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웹커뮤니티가 PC통신 서비스를 대체하였다. 단체들의 홈페이지 제작과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커뮤니티 형태로 조직된 이슈 그룹이 늘었다. 인터넷 대역폭의 확대와 함께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도 증가하였다.



1114 프로젝트

진보네트워크는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PC통신 중심이었으며, 99년까지 각 사회단체들이 진보네트워크의 PC통신 서비스인 '참세상 BBS'에 CUG를 개설하도록 조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의 이용자도 증가하였으나, 다음(Daum)과 같은 무료 웹커뮤니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99년 후반기부터는 다시 이용자가 정체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중반에 '열린네트워크 프로젝트(Open Network Project)'를 기획하여, 지역 통신망이나 상업 통신망에서 014XY 망을 통해 진보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었으며, PC통신에서 인터넷 기반으로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존 유료 가입자 기반의 BBS 서비스를 무료 웹기반 서비스로 변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부터 '1114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기존 PC통신 서비스의 게시판, 자료실, 메일 등을 웹으로 연동하여 기존의 텍스트 형태의 PC통신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웹으로도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참세상을 무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웹기반의 새로운 커뮤니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기존 PC통신 방식의 접근과의 동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BBS' 연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재정문제와도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 교육사업,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통한 수입도 있었지만, 당시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재정은 주로 참세상 BBS 이용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료화하는 것은 재정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화하고, 웹기반 서비스로 가는 것이 합당한 방향이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얘기일 뿐이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용자 중심 구조에서 '회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참세상 서비스의 무료화와 함께 이용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호소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발기인이 주축이 된 초기 회원들이 있었지만, 2000년 후반기에 회원이 급증하였다.

참세상 BBS의 인증 기능,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의 웹연동이 완료되어, 2000년 11월 '참세상 공동체'를 오픈하였으며, 2001년에 메일 및 회원가입 기능의 웹연동이 진행되었다. 2000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주년을 맞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비스는 무료로 전환하였다.



웹호스팅과 메일링리스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웹호스팅 서비스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웹호스팅 서비스는 주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이슈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었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하고 서버 관리를 해주는 웹호스팅 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더 저렴한 상업적 웹호스팅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이 진보네트워크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이나 선거 등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서버 부하가 급증하게 되는데, 진보네트워크는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파업 시기에는 며칠 동안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며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는 서버 로그기록에 IP주소를 남기지 않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보안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진보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큰 규모의 단체들이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현재, 500여개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호스팅 서버를 비롯하여 총 13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였으나, 2002년부터 인터넷 전용선 제공업체에 서버를 두고 있다. 2001년 말부터 KRLINE에서 진보네트워크에 무료로 회선을 지원하고 있다.

메일링리스트는 시민사회운동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송하거나 특정 이슈와 관련된 소통을 위해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는 초기에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증가하는 서버 부담 때문에 현재는 웹호스팅 단체와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약 700여개의 메일링리스트가 개설되어 있다.

대안 미디어로서의 진보네트워크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다. 손 쓸 사이 없이 퍼져나간 동영상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도 언론이 모두 빠져나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이 폭력 사태를 고발한 것은 참세상 방송국을 비롯한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http://dwtubon.nodong.net)이었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영상운동과 인터넷의 결합이 제도 언론이 독점하고 왜곡해온 미디어 질서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미디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주장하는 바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질서는 소수의 미디어 자본에 의해 독점되어 민중에 배타적이었다. 세계 사회운동 진영은 이러한 독점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인 소식지나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힘을 합쳐 보다 진보적인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라디오나 위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이 참세상방송국을 통해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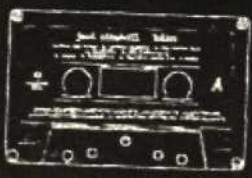
성 방송국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운동 진영이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정된 유통망과 높은 비용은 큰 장벽이 되어 왔다. 1980년대 등장한 인터넷은 저렴하면서도 다른 어떤 매체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곧 인터넷은 사회운동의 강력한 대안 미디어로 부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운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해왔다. 1998년 9월 12일, <'IMF에 도전하는 민중' 서울 국제민중대회 총결산 및 실업자대행진> 인터넷 중계 방송으로부터, 1998년 11월 8일, <98 민중대회> 인터넷 중계 방송, 1998년 11월 15일, <생존권사수와 총체적 개혁촉구 위한 노동자/농민/빈민대회> 인터넷 중계 방송 등 인터넷 방송 실험을 계속해왔다. 또한, 1999년 4월 19일~26일에는 노동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고용안정 통신단>을 운영하여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97년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http://www.jinbo.net/~cast/strike99/index.html, 현재 URL이 http://strike.nodong.net/strike99/ 로 변경됨) 이러한 실험은 1999년 9월 <참 세상 방송국>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세상 방송국

1999년 9월, 인터넷 방송 <참세상방송국>의 시험방송이 시작되었다. 애초에 참세상방송국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식적인 사업조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동호회(?) 형식으로 출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내 공간에 방송녹음/편집실을 마련하였으나, 상근 활동가 없이 자원활동가들의 결합으로 운영되었고 편집용 컴퓨터 및 오디오, 비디오 장비도 개인 소유 장비를 이용하였다.

참세상방송국은 주간리포트와 기획영상물 등 시사채널, '내가찾는노래', '구닥다리노래창고' 등 음악채널, 여성뉴스 등 뉴스채널, 퍼블릭 액세스를 지향하는 열린채널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송국의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알리는 메일링리스트 소식지 '세상참'을 발행하였다. 2000년 이후 스트리밍 기술이 급속히 확산, 보급되었으며, 참세상방송국도 초기의 '실험' 단계에서 '전문 인터넷방송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구닥다리 노래창고

60-70년대 음악 전문채널

[지난 방송 듣기] [구닥다리 게시판]

45회. 와이키키 브라더스 - 10.4 (387)

1. Live is Life / Opus
2. I Love Rock N' Roll / Joan Jett & the Blackhearts
3. 세상만사 / 송골매
4. 한줄기 빛 / 송골매
5. 구름과 나 / 불석 테트라
6. 불꽃이야 / 옥순80
7. 그대 떠난 이밤에 / 옥순80
8. Don't Play the Rock'n'Roll to Me / Smokie
9. Don't Look Back In Anger / Oasis

요즘 노래는 들을 게 없다고 투덜대는 옛 세대를, 예전 노래들은 유치하거나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를, 그 어느쪽이든 환영합니다.

<노래창고>는 옛것이 되 새것인 음악을, 세대를 가로지르는 동시대성을 공유하는 모든 "Oldies but Goodies"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 창고지기

참세상방송국 <구닥다리 노래창고> 프로그램



참세상 뉴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나, 그 배포범위는 회원(조합원) 및 연대 단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1998년 당시만 해도 아직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단체(혹은 노조)가 많지 않았으며, 홈페이지가 있어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참세상 뉴스를 통해 '모든 사회운동 정보의 집산/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만드는 뉴스/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표방하며, 각 사회운동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사회운동의 KINDS'(KINDS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이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세상 뉴스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각 단체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참세상 뉴스에 자발적으로 올리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각 단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력도 여타 네트워크 서비스에 집중되어 참세상 뉴스에 필요한 역량을 투입하지 못했다. 참세상 뉴스는 참세상 BBS, 웹호스팅,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온라인 사업팀'에서 운영하였는데, 타 단체의 뉴스 클리핑이나 일부의 자체 작성 기사로 이루어진,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루는 작은 부분이었을 뿐이다.

2001년부터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참세상 뉴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동영상 취재를 담당할 활동가도 충원되었다. 텍스트 기사, 컬럼, 동영상 페이지 '현장에서',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기획 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으나, 뉴스 생산을 위한 활동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였다.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의 통합

참세상 방송국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의 주된 콘텐츠의 하나였고 주요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으로부터 자율성

을 갖고 운영됨에 따라 사무국과 참세상 방송국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참세상 뉴스가 사회이슈에 대한 동영상 취재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 사이의 업무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미디어 전략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기존의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를 '참세상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미디어국'을 신설하여 참세상 방송국,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진보넷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